



前衛舞臺

제4회 전국지방연극제 참가작품

산지대

전 동 수 / 작
전 성 환 / 연출

'86.5.26 (4:30 7:30 1일2회공연)

대구직할시시민회관대강당

■ 대표 / 연출의변



全 盛 煥

극단대표
연극협회부산지부고문
예총부산지부부지부장

모든이가 하나되게

광 복이후 우리의 문화예술은 많은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다. 그것은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민족적 긍지로서 문화 예술인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억압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문화적 정신을 바탕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서 일제하의 억압적이었던 여러 요소들이 잔재함으로써 자유로운 우리의 것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경우를 공연법 개정으로 없었던 것이다.

공연예술에 대한 보호육성책으로서 연극 공간의 자유화, 공연자 등록규제삭제, 요금인가의 자유화 등 그야말로 발전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왜 내가 공연예술 활동을 하는가”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적인 확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집결의 계기가 되었는지” “연극인 스스로의 질서에 의한 자율이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창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마음의 눈에만 진실된 모양을 나타내는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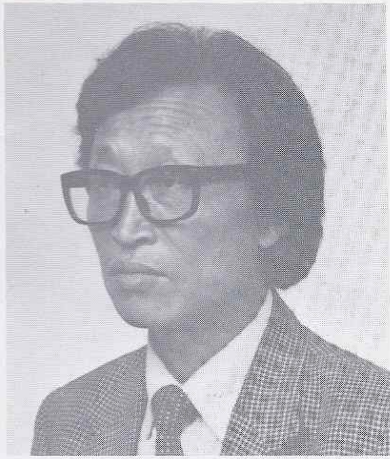
「산지기네」를 통해서, 별빛처럼 아름답고 알차고 영롱한 인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성난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 대사와 거치른 호흡소리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을 현실의 것과는 판이한 속도로 이끌어 가고, 침묵을 통하여 끝없는 내면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제 4 회 전국지방연극제」에 참여하는 모든이들이 하나되기를 바라면서...

옹고 그림의 다툼

■ 작가의 뽀



극작가 / 全 東 壽

삶의 진실은 삶 그 자체에 있다. 어떤 삶이나 방식을 캐려는 데에 역겨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땀땀으며 그냥 그냥 산다면 궁핍하고 영글지 못한 낙후인이 되어 테드라인 밖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그점을 떨기 위해서도 기를 쓰고 타인의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귀를 쫑긋거리며 열심이 듣고 반사적으로 부르짖어야만 한다.

“나는 옹다./ 착하다, 진짜, 진짜…….”

피는 말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진하다. 물은 그냥 물이면 된다. 공기는 공기이면 죽하고, 새는 새, 달은 달, 구름은 나무는, 바위는, 모든 저마다의 그것이면 되는 것이다. 짐승은 짐승, 사람은 사람이면 그만이다. 다 제것의 생명과 색깔이 있으므로 그렇다. 그것들에게 온갖 술어가 개입된 것은 유감이다. 이물스러움이 끼어들어 고통받게 하는 것이다. 불순이니, 순수니, 오염이니, 진짜니 가짜니, 착하다니 악하다니, 그래야만 제격일까.

새는 날고, 구름은 떠 있고, 바람은 불고, 나무들은 싱그럽고, 물은 흐르면 그만이다. 짐승은 짐승껏 사람은 사람껏 살자함이 옹다. 여기에 타박과 오류가 치장과 거짓이 부각되어 가슴앓일 부인 못할 필요가 있는가.

희곡 『산지기네』는 자연질서를 바탕 삼아 씌어진 것이다. 옹은 말로 자연질서 하면 옹고한 것이니까 그것을 의식하고 일부러 옹고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하고는 차이를 둔다. 원인발생이야 어쨌든 복받은 자, 부의 인생을 누린 자, 돈육, 명예육, 더 떠 사회, 정치육까지 채우고 석양빛을 받을 때는 한정된 길목에서 하느님을 부르는 애뜻한 자들.

「저를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한마디로 천당가게 헤달라는 이야긴데, 옹다는 건 다 의식하고 살아가려는 긍정적이고 합리화 좋아하는 삶의 주인공들 하고는 다르다는 것이다.

『산지기네』, 주인 김씨의 삶은 단조롭다.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의 무식이 전제하지 않더라도 자연질서가 어떻게 옹고함이 어떻게 의식적인 삶이 어떻게 모른체 다만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쯤만 알 정도이다. 그저 분수껏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의 전부이다. 그 외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돈도 물질도 하느님도 의식할 줄 모른다. 타고난 대로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 자식들은 그를 용납하지 않는다.

땅벌레같은 부모의 생능을 타박하고 바깥의 밝은 문명살에 투기를 쓰고 있다. 곰팡이 같은 가난살일 박차는 꿈의 실현, 그것이 크나큰 비극의 파생을 이룬다. 기초자연이나 원시론을 퍼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고 있는 분수를 의지쪽에 승화시켜 보자는 것이다. 부모의 뇌리에 습성을 박힌 삶의 그것과 바깥세상(물질문명)을 투기하는 자식들과의 어쩔 수 없는 대립. 끝내 비극이 초래되지만 삶 자체의 연계성에는 변화가 없다.

『산지기네』를 꾸며 놓고 자연법(하느님의 교훈)과 실정법(사람이 만든 법)에 관해서 생각하게 된다.

두법의 대립은 끊임 없으며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승리는 어느 쪽일까. 결국 『옹고 그림의 다툼』, 그것이었던.

부인못할 리얼리즘이나 습성화되어 있는 형식의 답습,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쓰길 잘했고, 이미 관객과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점, 우리

『산지기네』, 식구들의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애써주신 연출, 전성환 선생님, 그리고 전위무대 회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캐스트

산지기 김씨 / 전 성 환
 아내 / 송 순 임
 복동 / 이 상 준
 복식 / 전 근 섭
 복녀 / 김 미 희
 면장 / 홍 성 표
 이장 / 조 민 기



전 성 환



전 근 섭



송 순 임



이 상 준



홍 성 표



김 미 희



조 민 기

스타프

기획 / 원 창 호
 무대미술 / 권 상 오
 섭외 / 조 유 진
 기록 / 공 은 주
 장치 / 서 광 석
 음향 / 도 인 봉
 진행 / 진 총 봉
 조명 / 한 동 회
 의상 / 최 수 숙
 소품 / 장 경 애
 분장 / 김 준 원
 석



권 상 오



원 창 호



도 인 봉



서 광 석



김 원 중



공 은 주



최 정 숙



강 경 애

● 연극은 인생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도장이며 신앙이며 종교이다 - 윌러